

# KT, 개방형 5G 오픈랩 공개… 4차 혁명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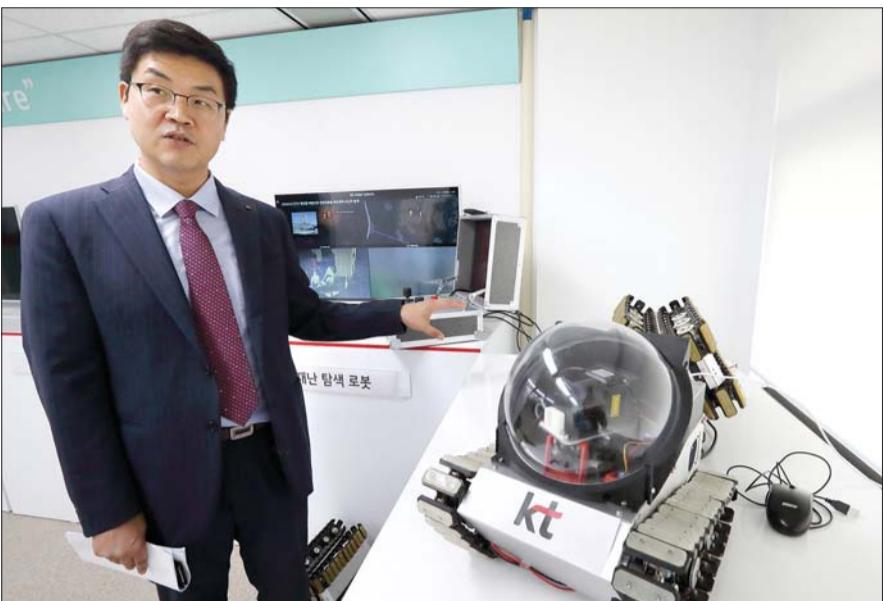
개발공간 3곳·전시공간으로 구성  
홈페이지 예약·사업화 제안 가능  
5G 핵심기술 API 링크 만들어 제공

“KT는 5G가 기준 4세대 LTE 통신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5G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역할을 한다.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엮어내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KT가 5G 오픈랩에서 본격적인 5G 서비스 개발과 관련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5G 오픈랩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 KT의 5G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4일 문을 열었다.

기자들은 초청한 랩투어 자리에서 KT 융합기술원 전홍범 인프라연구소장은 KT에 5G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했다.

5G 오픈랩은 KT가 참여사와 함께 5G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협업을 목표로 한다. 개발 공간 3곳과 전시 공간으로 구



KT 융합기술원 기술전략담당 윤진현 상무가 6일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KT 5G 오픈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있다. 여기서는 ▲5G 관련 인프라 및 가상화 기술의 개발과 시험이 이뤄지는 인프라 존 ▲AR·VR 등 5G 실감형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체험·개발이 가능한 미디어 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카네티드카 등 사물인터넷(IoT) 관련 응용 서비스를 개발·시험하는 스마트엑스 존으로 구분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5G 오픈랩 사용 기업들은 KT가 개발한 5G 네트워크와 5G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5G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다.

5G 오픈랩에서는 편리한 사용을 위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도 있다. 여기서는 5G 오픈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방법, 사업협력 방안 등을 안내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5G 오픈랩의 개발 공간과 전시 공간 등을 예약할 수 있고 직접 사업화 제안도 가능하다.

참여 기업이 5G 서비스 개발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5G 핵심 기술을 API로 만들어 API 링크라는 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API 링크는 KT 플랫폼을 레고블록처럼 쉽게 조합하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다. API 설계와 개발, 테스트 등 자동화 과정을 거쳐 API를 신속하게 희망 기업에게 제공한다. KT는 연말부터 이 API 포털을 통해 VR, 클라우드, 정밀측위, 영상분석 등 5G 핵심기술 API를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

KT는 5G 오픈랩 운영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강화하고 5G 글로벌 시장 성공사례를 확보해,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사 규모로 파트너를 확대한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판교에 ‘오픈 이노베이션 랩’ 이름으로 5G 오픈랩을 확대 개소한다.

전홍범 연구소장은 “자율주행차 등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위한 것, VR, AR 같은 디바이스, 원격 의료 등 기존 기술로 못했던 것에 5G가 필요해진다. 협력사들과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야 하는데 오픈랩은 그런 활동을 위해 KT와 협력업체가 만나는 자리”라며 “향후 KT의 차별화된 5G 네트워크와 기술, 오픈랩에서의 공동 협력 결과물을 5G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고객센터 앱 개편… ‘생체인증’ 기능 도입

### LG유플러스 ‘U+ 고객센터’

요금제·데이터 등 접근성 강화

LG유플러스는 7일 자사의 모바일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U+ 고객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U+ 고객센터’는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통신 요금제 조회, 데이터 확인, 부가서비스 신청·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앱 서비스다.

이번 ‘U+ 고객센터’ 개편의 골자는 친고객 서비스 강화다. LG유플러스는 고객 요청사항과 불편함 분석을 전담하는 내부 조직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생체인증 기능 도입이다. 통신사 고객센터 앱에서 생체인증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들은 ‘PASS 인증’ 앱과 연동을 통해 지문·홍채·안면 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등의 업무 처리 시 ‘휴대폰 유심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했다.

첫 화면 구성도 간결하게 바꿨다. 고객 이용과 문의가 잦은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



모델이 LG유플러스의 ‘U+ 고객센터’ 앱 개편 소식을 알리고 있다.

치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쿠폰, 선물 받은 데이터 이용 시 소진 현황과 데이터 초과 사용량은 첫 화면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실시간 납부 현황, 이용 중인 요금제·부가서비스도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접근성도 강화했다. 고객들은 유·무선 결합으로 할인 받는 금액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에서는 가족 구성원별 할인 금액과 총 할인료를 볼 수 있다. 데이터 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데이터 2배쿠폰, 주고받기, 멘버십 데이터 선물하기, 데이터 충전 등을 한 메뉴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 그밖에 휴대폰·인터넷 결합 신청 기능과 휴대폰 분실 등록·해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전기차에 스마트폰까지… 배터리 실적 ‘기대’

### 삼성SDI

잇단 출시에 하반기 공급 증가 예상

전기차 시장 성장에 전지 등 수혜

삼성SDI의 올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하반기에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로 전지 및 전자재료 공급 또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6일 IB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배터리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SDI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8% 증가한 2조52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4.1% 증가한 2011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삼성SDI의 3분기 매출액은 2조6120억

원, 영업이익이 211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전기차, 스마트폰 출시가 잇따르며 배터리 공급량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업체들은 현재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한 임박과 보조금 지급기준 변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패권 경쟁으로 배터리 사업부 가치는 부각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SDI의 자동차 배터리 매출액이 올해 1조5540억원에서 2019년 2조3250억원, 2020년 3조1210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연구원은 “7월 태슬라 모델3 판매량은 1만5000대로 전달보다 105.1% 증가했고 최근 BMW 디젤차 이슈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더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미국,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이 삼성SDI 배터리를 우선적으로 탑재할 가능

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원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1%를 차지하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오는 2020년에 152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전기차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측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전기자전거, 무선청소기, 드론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소형 배터리 판매량이 늘어나는 점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폴리머 전지 및 전자재료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고마진 원통형 어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안전운전 약속”하고 캠페인 참여하자

### SK텔레콤 ‘T맵×누구’

사고 피해자 자녀 장학금 지원

‘T맵×누구’에 “안전운전 약속”이라고 말만 하면 최대 1억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장학금으로 쓰인다.

SK텔레콤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함께 ‘T맵×누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자 인식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글로벌 교통안전 캠페인’을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유엔(UN)의 제7회에 따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실시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를 500만명 줄이는 게 목표다.



모델들이 ‘T맵×누구’의 운전자 인식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T맵×누구’ 고객은 오는 10월 3일까지 ‘누구(NUGU)’를 호출해 “안전운전 약속”이라고 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캠페인 참여 고객 1명당 100원씩 적립해 최대 1억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달한다.

### 카카오모빌리티

日 재팬택시와 업무 제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본 최대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팬택시와 자본·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팬택시에 15억엔(약 150억원)을 출자했다. 재팬택시는 도요타, NTT도코모 등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재팬택시가 일본 기업 외 자본 제휴를 체결한 해외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초다.

이번 자본 제휴를 계기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재팬택시는 올 4분기를 목표로 ‘카카오 T’와 재팬택시 앱을 연동한 ‘택시로밍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택시로밍’은 스마트폰 로밍과 같은 개념으로 양국 방문객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택시 호출 앱으로 간편하게 현지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포스코, 추석 앞두고 거래대금 조기 집행

포스코가 다가오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 거래기업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는 일반자재 및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업체 등 거래기업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결제하던 것을 추석을 앞두고 이달 17~21일 닷새간 매일 지급해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돋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월 단위로 정산하는 협력사의 협력 작업비도 오는 14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원래대로라면 다음달 2일 지급 예정이지만 중간 정산 개념으로 빨리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액은 총 1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회사 측은 설



포스코 대치동 사옥

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4년 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지급하고, 매년 설·추석 명절에는 거래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